

1978~1979년 상임위원회별 사업시행 결과를 통해 본 간호사업의 전망

기획위원회 편



김 순 자
(본회 제2부회장)
(기획위원장)

기획위원회라는 생소한 기구가 협회 조직에 신설되어 이에 반년 남짓 관여 해 오면서 회원들과 나누어야 되겠다고 느낀 몇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9년 1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46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간호협회는 상임위원회로서 기획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2월 23일 개정 정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의료법 27조, 3항에 의거)를 받았습니다.

4월 25일, 중앙이사회의 위원인준을 받아 5월 31일 제 1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였고 현재까지 총 5회의 회의를 통하여 위원들은 기획위원회의 소관 업무/활동에 대해 실제적인 orientation을 스스로 받으며 소관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본회 활동을 돌아켜 보면: 본회 사업활동의 계획은 대개 회장이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업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중앙이사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취합, 조정되며 대의원 총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인력, 재정 및 시간의 뒤바뀔 정도에 따라 그 실시정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관한 활동이나 오랜 기간을 요하는 사업, 그리고 협회 기본역할과 기능에 속하는 여러 활동은 일년의 진행경과로 마무리 될 수 없었고 대개는 계속 사업으로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이월되어 포함되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정부, 대사회 활동을 뒷바침 할 적절한 자료(data)가 부족하였던 것은 활동과정에서 여러번 느꼈던 현실이었습니다.

1년간의 사업진행결과를 평가하는 연말이 되면,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협회활동과 사업에 직접 참여한 임직원은 협회의 역할과 권한 등 근본적인 것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와 좌절을 맛보게 되며 연쇄적으로 회원들에게 대하여 막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1979년도 사업을 계획할 당시 김포임 회장은 1년간의 기본 방향 뿐만아니라 1983년도(5차년도) 및 1988년도(10차년도)에 성취되어야 할 중장기 목표와 9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중앙이사회와 이사회가 각 상임위원회 79년도 소관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및 단기 목표에 비추어 이를 조정하였고 각 주요 정책과제와 각 과제별 장기, 중장기, 목표와 함께 총회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법제위원회 편



홍 영 숙
(본회 제1부회장)
(법제위원장)

이러한 경과도 미루어 볼 때 기획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아래 몇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본회 주요 정책과제별로 그 목표에 비추어 년도별 사업진행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일과 이에 비추어 차기년도 1년간에 달성될 수 있는 적절한 단기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중앙이사회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사업의 진도를 분석한 결과와 인력자원과 재원등 협회의 내적사항, 그리고 다양한 협회의 외적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 및 장기목표를 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본회 각 사업부서가 대사회활동, 특히 대정부 활동을 하거나 대회원활동을 할때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적절한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간호교육, 간호업무 전반에 대한 협회의 표준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1979년도에는 1980년도 사업계획의 조정작업, 중장기, 및 장기 목표의 조정안을 다루었고 의원 \$26,000으로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취업동태와 간호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조만간 마무리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1979년도 총회 확정사업으로 “참간호” 운동을 채택하였으며 기획위원회 소관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기획위원은 경륜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열의가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1979년도 위원을 지부장 중 한 분, 보건소에서 한 분, 건강관계 연구기관에서 두 분, 국립 및 사립 종합병원에서 각각 한 분씩,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각각 한 분씩이었습니다. 다섯번의 회의를 통해 모든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성의와 의안심의에 몰두하는 열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까지도 계속되던 열띤 토의는 간호계 당면 문제 전반에 걸친 것이어서 때로 이러한 열의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특히 “참간호” 운동을 위해 지부를 순회 강연 하는데 큰 몫을 하여 주신 김수지 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1978~79년 간의 본 위원회가 시행한 사업내용을 개별하면,

1. 본회의 사업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회를, 평생회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생회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 ① 본회 정관에 규정된 8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 규정.

② 간호학생과 간호학 연구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금 규정.

③ 본회 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규정.

④ 직원의 복무에 대한 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을 제정하므로써

정관, 2개의 규약, 12개의 규정을 갖추게 되어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칙의 대략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음은 크게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회가 계속 추진하여 온 의료법 개정건의 중 의료인의 정기신고 절차가 중앙회의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신고하도록 79년 3월에 개정되므로써 의료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실태파악으로 인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할 큰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간호 단독법의 입법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료인의 사명과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

중한 임무수행을 뒷받침할 인력, 시설 및 제도적 구조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문제 해결은 당국에 의지할 것만은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변천과 발전을 꾀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간호원이 의료인으로서 독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임무에 대한 법적보장의 확립. 둘째, 여러 분야의 간호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 발전시킬 수 있는 중앙 감독기관의 확장. 셋째, 분야별 인력의 자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예: 보건관리요원의 경우, 국졸자도 될 수 있음)의 설정등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호 단독법의 입법화라 생각 됩니다. 이 법은 급속히 변천하는 의료사회에 따라 필요시 될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소홀함이 없는 기초 작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해결과 목표달성이 일조일석에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지속적인 정진과 인내 그리고 협동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앞날을 보다 밝게 약속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본회에 대한 격의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오며 또한 기대합니다.

학술위원회 편



방 용 자
(본회 중앙이사
학술위원장)

학술위원회는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간호교육 및 보수육에 관한 일체 사항과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인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학술위원회에

서는 연구 및 조사사업을 위시하여 보수교육 학술활동 장학사업등을 활발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두 해 임기동안 이렇게 활발히 성공적으로 사업계획을 마칠 수 있었음은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학술위원들의 노고가 함께 조화되어 영글어진 열매로 생각됩니다.

1978년에는 종래에 회원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중앙회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지부육성을 위해 지부에서 실시토록 권장하였으며 중앙회에서는 처음으로 재미한인간호협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내규모의 학술활동에서 국제규모로 발돋움하게 된 획기적인 변화이었습니다. 또한 이 해의간호원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위하여 4개월간에 걸쳐 단기보수교육반을 실시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총회에서 결정된 10개년 장기사업계획에 따라 지부육성 강화를 위해 보사부후원을 받아 11개지부에 정신간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참간호실천을 위해 보수교육강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978년과 1979년 두 해동안 임기를 마치면서 회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회원들이 졸업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와 노력등을 바라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학생과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임상에 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 유지, 회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주길 바라며 2년동안 이루어진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8년도

주요 사업	세부사업
연구 및 조사 사업	1. 1978년도 간호교육 실태조사 —대한간호 1979. 1·2월호 게재 2. 간호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연구중
보수 교육	1. 지부회원을 위한 보수교육 ○ 경북지부—일시 : 1978. 7. 28~7. 29 주제 : 현대간호의 경향 대상 : 지부회원(261명) ○ 강원지부—일시 : 1978. 8. 3~8. 4 주제 : 변화하는 간호원의 역할 대상 : 지부회원(154명) 2. 국가시험 출제 개선 워킹 일시 : 1978. 10. 26~27 대상 : 간호교육기관 교수(54명) 강사 : 김란수박사 3. 미해외간호원 자격시험을 위한 단기 보수교육 기간 : 1978. 5. 1~9. 30 인원 : 80명 과목 :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간호학 ○ 단기보수교육반 수강자 선발시험 일시 : 1978. 4. 29 응시인원 : 197명 합격자 : 80명 ○ 특강실시 내용 : 미해외간호원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사항 일시 : 1978. 6. 19 연사 : Miss Adelle Herwitz (C.G.F.N.S. 사무총장) ○ 정신과 간호학 시험문제 출제경향에 관한 특강 일시 : 1978. 6. 19 연사 : 한 은지 ○ 단기보수교육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시
학술 활동	재미 한인 간호협회 초청 합동학술대회 일시 : 1978. 7. 6~7 주제 : 간호 대상자를 알자. 대상 : 재미회원 38명, 본국회원 152명
장학 사업	장학금지급 ○ 대여자학생 인원 : 10명 지급액 : 1,350,000원

주요 사업	세 부 사 업									
연구 및 조사 사업	1. 1979년도 간호교육 실태조사—자료수집중 2. 간호인력 취업동태와 간호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기획실과 협조하여 자료 컴퓨터 처리중									
보수 교육	1. 지부 및 산하단체 보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간호원 세미나예산 보조(100,000원) 일 시 : 1979. 4. 26~27 주 제 : 참된 간호원의 기본자세와 소비절약운동 참 석 : 150명 ○ 지부 및 산하단체 참간호 보수교육 강사지원 경기(6/8), 경북(10/23), 군진(6/8), 경북(7/28), 임상간호원회(4/26) ○ 11지부 정신간호 보수교육 강사, 예산, 교재지원 예 산 : 총 1,375,000원(지부당 125,000) 교 재 : 총 1,500부 									
학술 활동	1. 일차보건의료와 간호·조산업무에 관한 연찬회 후원 일 시 : 1979. 7. 23~26 주 최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후원액 : 200,000원 2. Dr. DuGas 초청 특별강연회 후원 일 시 : 1979. 11. 7 주 최 : 간호학 연구소 3. 일차보건의료요원의 훈련 및 업무수행 평가 연찬회 참석 일 시 : 1979. 8. 29~9. 1 주 최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참석자 : 김순자 제 2 부회장									
장 학 사 업	1. 특별, 일반 장학생 추천 <table border="1" data-bbox="422 1280 1039 1425"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학기</th> <th>특별 장 학생</th> <th>일반 장 학생</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인 (1인당 15만원)</td> <td>5인 (1인당 10만원)</td> </tr> <tr> <td>2</td> <td>4인 (1인당 20만원)</td> <td>5인 (1인당 10만원)</td> </tr> </tbody> </table> 2. 3M장학생후보자 추천 박주봉회원 추천 (서울지부)	학기	특별 장 학생	일반 장 학생	1	2인 (1인당 15만원)	5인 (1인당 10만원)	2	4인 (1인당 20만원)	5인 (1인당 10만원)
학기	특별 장 학생	일반 장 학생								
1	2인 (1인당 15만원)	5인 (1인당 10만원)								
2	4인 (1인당 20만원)	5인 (1인당 10만원)								

재정위원회 편



이 성 옥
(본회 중앙이사)
(재정위원장)

회계이사를 맡아 회무를 보기 시작한 것이 었 그제 같은데 벌써 맡겨진 2년이란 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들이켜 보면 길지도 않고 그러나 결코 짧지도 않은 2년이란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 범 회원운동으로 펼친 대한 간호와 간협신보의 육성을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못 내 섭섭한 감이 듭니다. 간협신보의 창간은 우리의 염원 사업의 하나였으나 그 기금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끌어져 와 그 운영에 큰 애로를 겪었으며 79년 총회에서 더욱 원활히 간협신보를 움직이기 위한 기금 확보를 결의, 이에 따라 전 회원들의 모금운동을 펼치게 된 것을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간호원 면허 소지자는 3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1980년이면 40,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회에 등록된 회원의 수는 6천여명의 평생회원을 포함하여 약 1만5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회원이 훨씬 많은 셈입니다. 그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힘은 여럿의 힘을 합치는 데서 비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가 보다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간호원들이 모두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 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만일 모든 회원이 등록한다면(물론 이는 회원의 의무이므로 하셔야 합니다).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협회 재정상태는 현재보다 3배이상

될 것이며 이로서 협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맡겨진 의무를 다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굳건한 한석위에 서게 될 것이며 비로서 우리들이 원하는 간호 사업을 전개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년은 국내외로 매우 다사다난한 때였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전 세계가 중지의 지경에 처하여 돌아가 양등하는 등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도 모든 국민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지켜 모든 위기를 굳건히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보다 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협회는 더욱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사회는 우리 간호원들의 위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원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인식을 심기 위한 노력은 조금도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협회의 육성은 꼭 필요한 것이며 모든 회원들이 증지를 갖고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마음을 모은다면 더지 않아 간호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에 심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가 항상 외치고 있는 간호원의 처우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2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회계이사의 중책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해 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출판위원회 편



최 상 순
(본회 중앙이사)
(출판위원장)

가을은 모든 사람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계절입니다. 월동을 위해 가정을 돌아보며 벨감과 짐장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관찰하여 사정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1979년의 가을은 70년대에서 80년대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해의 마지막 고비여서 국가단위로 또한 지역단위, 기관단위로 모두가 과거 10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대망의 10년을 어떻게 맞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미 1979년에 10년간의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왔으므로 이제 2년간의 사업만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2년의 임기 중 도중에 출판위원장의 임무를 맡게 되어 前위원장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도 못한 채 일에 쫓기다 보니 벌써 결산을 하는 마루터기에 도달하여 무언가 회원 여러분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도 듭니다. 사실 그동안도 회원들의 뜨거운 격려와 출판위원들의 희생적인 협조 또 출판부 실무진들의 고심과 노력으로 계획된 사업을 오늘까지 지탱해 왔으나 실제적인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보니 그 막중함과 함께 괴로움도 배가 되었습니다.

적은 경험에 의한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좋은 책을 많이 출판하고 기쁘던 대한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연구하였던 것이 출판위원들의 업무였다고 생각되나 지난 임기 동안에는 노출된 예산부족으로 매사에 계획을 축소시키며 다지는 대한간호협회 출판역사상 가장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978년에 시행된 사업은 신간서적 4종(한국간호관계 논문 요약집, 상용약편람 및 간호)과 개정판 1종(의료법령집), 재판 2종(문제집 종합편과 성인편), 대한간호 6회를 발간 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신간서적 1종(어린이 간호의 원리와 실제), 개정판 2종(정신 간호학문제집, 의료법령집)재판 6종(인체해부학,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간호학, 문제집종합편, 보건간호학편,

산소아과간호학편, 간호사회학편)과 대한간호는 1962년 이래 한호도 거르지 않던 것이었으나 예산의 삭감으로 눈물을 머금고 7, 8월에는 휴간하여, 연간 5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기하고 싶은 사업은 간호문고의 제작이었습니다. 많은 성원중에 회원들의 평생교육, 계속교육의 좋은 자료가 되리라는 기대와 여른 속에서 출범을 했지만 아직 지령의 역사가 짧아서인지, 이 작은 책자의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여서, 인지 구독자가 적어 고심중에 있습니다.

1979년 4월에 창간하여 1979년 연말까지 5호를 발간하는 동안 출판위원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편집을 위해 무진 애를 써왔는데도 이 문고판이 널리 구독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우리 회원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과 전문직으로서의 계속 성장에 대한 앞날이 저희 열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아마도 이 문고판이 널리 홍보되고 회원들의 사랑을 받아 질적 양적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그간의 시행된 사업을 통해 앞으로 출판사업의 전망을 감히 말씀드릴다면 제일 먼저 출판부의 사업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며 치밀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문가들이 필요되며 독자적인 투자기획이나 폭넓은 판매계획에서도 타 사업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완전 독립적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탈바꿈이 있어야 되리라 믿읍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나 면밀한 사전조사와 계획으로 그리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금도 확보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현재까지의 주사업인 교과서의 질적변화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개념과 제도의 변화에 적절한 수정보완이 선행되고 새로운 책들도 출판되어 계속 정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로는 대한간호협회의 장기사업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요구에 따라 계속교육 및 전문분야

간호원 교육에 이용될 참고물의 출판도 서둘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간호문고와 대한간호의 발행이 우리의 소망대로 월간으로 되어 활발하고 유익한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로는 장기사업계획이 되겠으나 간호학 및 간호사업발전을 위한 국내 및 국제교류를 위해 국제간호재단 설립지원에 대한 준비작업이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격려해주신 여러 회원, 출판위원, 실무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운영위원회 편



홍 정 혜
(분회 중앙이사
운영 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본회 여덟개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 ① 본회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섭외에 관한 사항 ③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임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9년 한해의 사업시행결과를 들여다보면 홍보활동의 비중이 컸으며 일간지 전문지 및 잡지에서 간호협회와 회원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다룬 것이 23건이며 TV방영과 라디오방송이 19회였습니다.

방송국의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간호원에 관한 바른 전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모니터직을 결성하고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음은 처음으로 시도된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 보다도 홍보사업에 있어서 간협신보의 역할은 비중이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역할과 활동을 바르게 알릴 수 있었으며 우리의 성장을

우리들에게나 남에게 알릴 수 있었음은 우리의 힘을 과시한 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중에서 간호협회 대표들과 보사부장관과의 간담회는 물론, 병협과의 협 그리고 간협의 단체장 간담회는 의료계의 당면문제점을 논의하고 의료인간의 상부상조의 상호이해의 풍토조성을 이룩한 것은 간협의 제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로서 그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외원으로 실시한 새마을 건강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는 참석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① 건강의 중요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② 지역 사회의 건강문제의 현실을 알렸으며 ③ 간호원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④ 관과 주민 그리고 의료인은 주민의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의 예방과 처치에 대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의식하여 서로 노력하자는 배 뜻을 모았다고 봅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호원의 역할이 크다고 인정되어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 충북도내 다섯개 보건소에 간호계를 신설하게 되었음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큰 소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더우기 80년대는 국민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으며 특히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차건강 사업은 세계의 관심사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KHDI의 시범사업으로 간호원의 역할기대가 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한가지 측면으로만 보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막중하나 우리의 역할 수행에 따른 모든 여건은 너무도 막연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① 간호원이 지역사회 건강사업, 임상간호, 교육 그리고 행정분야

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야 할 것이며
 ② 보사정책수립에 직접 참여 해야 할 것이며,
 ③ 우리가 바람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개선을 위한 뒷받침이 이룩 되도록 꾸준히 또 열심히 노력한다던 기필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읍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복지위원회 편



김 정 애
 (분회 중앙이사
 복지 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해 오던 간호원의 복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을 위해 다음의 목적을 두어, 1979년부터 복지위원회가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 ① 회원의 사회, 경제적 복지
- ② 회원의 권익옹호
- ③ 기타 상담 홍보에 관한 사항

동일합니다.

간호원의 복지를 위한 연구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며, 또한 개선되어 행하여져야 합니다. 이는 간호원 개개인을 위한 일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모두가 구성원인 대한간호협회, 즉,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일년동안 복지위원회를 맡아 오면서, 간호원의 복지란 우리들 측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 하나 착실하게 해결하므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생겼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무사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전 회원의 참여와 성원, 복지위원들의 노고가 컸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1979년은 대한간호협회 제 1차 10개년 장기사업계획이 실시되는 첫 해로, 간호원의 권익옹호 및 복지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해였습니다. 그 간에 복지위원회에서는,

1. 간호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원의 임금실태조사
2. 각 분야별 임상, 산업장, 보건, 학교 등의 문제점 해결방법의 조사.
3. 해외 취업간호원의 최저 임금기준설정등을 위하여, 몇몇 기관 및 회원들과 상담을 통한 조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1980년도 간호사업의 방향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를 위해서

- ① 현재 신설된 충청북도 간호사업계를 적극 지원.
- ② 간호원의 고용조건 및 법적문제에 대한 상담활동.
- ③ 각 분야별 최저임금수준 확정을 위한 기초조사.
- ④ 벽지 간호원을 위한 벽지수당지급.
- ⑤ 월로 간호원의 후생복지사업(즉, 근무 중인 간호원은 물론 정년퇴임간호원의 노후 생활보장).
- ⑥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 등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전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들면, 간호현장에서는 간호대상자를 위하여 철저한 간호이념아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성실하게 임하여 보건정책에 스스로 직접 참여하고, 해외취업시의 조건향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견을 모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간호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전문적

업적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사업임을 인식시키고 지역 사회주민의 건강사업을 함께 벌이도록 하여 1차건강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 분야 진출 간호원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며, 간호협회 산하에 간호복지사업을 두어 복지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초조사는 다른 위원회와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에 만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회비관리위원회 편



양 은 숙
(본회중앙이사
평생회비관리위원장)

지난 1年半동안 평생會費 管理委員會 委員長 일을 맡아본 本人으로서의 십여년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하여 주셨던 先輩 여러분들과 여러 회원들에게 罪悚한 마음뿐입니다. 어떠한 事業이나 其他 모든 問題의 解決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特別히 財産의 管理에 있어서는 보여진 돈의 管理나 消費가 有效適切하지 않으면 財産의 安全한 蓄積이나 保存이 어렵다는 것은 회원 여러분께서 이미 周知하고 있는 事實이며 따라서 本會의 平生會費는 平生會員 한명 한명이 힘겨움에 精誠들여 모은 貴重한 會費인데 이 會費가 가장 效果의으로 全國看護員의 福祉事業에 쓰여지고 또는 우리 國家社會 發展에 도움을 줄수있는 社會福祉事業에 投資되어 보람있게 保存 乃至 消費되어야 할 正確한 計劃과 施行過程에 對한 設計의 明確한 透視圖를 作成하여야 할 莫重한 責任이 이 委員會의 主任務임을 再三 認識하면서 보다 튼튼한 基礎作業을 하기 위해 本委員會는 數次에 걸쳐 會습을 가지고 여러가지 討議와 現

地踏查 및 議決한 內容을 다음과 같이 簡單이 報告합니다.

1979年 10月末日 現在 平生會費는

總額 225,000,000원

1. 現金預金 180,000,000
2. 龍仁土地 14,600,000
3. 新間貸與金 30,000,000

으로 나누어져 있고 現金預金은 市中銀行에서 가장 利率이 높은 것으로 預金되어 있으며 利率의 1/2金額은 本會의 經常費로 支出되고 나머지 1/2金額은 各支部의 平生會員比例로 支出되어 支部經常費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龍仁에 있는 土地는 龍仁郡 龍仁面에 있는 林野 26,400坪으로서 많은 솔나무와 若干의 밤나무가 있는 野山으로서 軍事施設保護區域이라는 말이 있어 本委員會에서는 軍事施設保護區域與否에 對한 것을 確實히 해야되겠다는 議決이 있어 本會職員으로 하여금 第3軍司令部에 公文으로 問議케한 結果軍事施設保護區域이 아니라는 答問을 받았고 現地踏查 結果 建物도 建立할 수 있고 現在 4m程度의 進入路도 地方自治計劃에 따라 15m道路로 擴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1975年度에 이곳에 建立하기 爲하여 設計하여 놓은 (가칭 看護員의 집에 對한) 計劃案의 再檢討 乃至 새로운 計劃案 樹立에 關한 것과 林野를 팔고 交通이 좋은 서울近郊로 代土를 購入에 보자는 意見이 있어 代土를 보았는데 面積이 너무 좁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적은 面積밖에 살수없고 몇 年後의 眼目으로 볼때 龍仁現地가 좋겠다는 委員會의 意見에 따라 이 林野에 擇地組成하고 모든 計劃을 樹立하기로 議決되었으나 莫大한 金額의 擇地組成費를 어떻게 할것인지? 에 對한 問題等의 여러가지 討議結果, 于先 外部로부터 國內國外의 援助의 길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자는데 議決을 보고 委員長과 本會 實務를 보고있는 事務總長이 함께 外援에 對한 것을 알아보도록하여 西獨獎學財團에 申請書를 提出하기로 하여 現在進行中에 있고 또다른 國內外, 外援에 對한 情報를 알아내어 계속 여러

<19페이지로>

3. 회의 세미나 및 기타 훈련계획

각국 협회는 ICN이 회의나 기타계획을 준비하고 제안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ICN으로부터 회의및 기타 계획에 대한 지시에 의존하지 말고 각 회원국이나 지역별로 이를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단일 협회나 몇 협회를 위해 유용한 행사가 무엇인지 또 조직 및 재정에 대한 의견을 CNR에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4.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목지에 대한 특별보조

노사관계와 교섭기술은 특별한 숙련을 필요로 한다. 많은 ICN회원국이 협상권을 가지고 있지

만 자국의 간호원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는 다른 기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회원국은 더 많다.

ICN은 이에 대한 전임직원이 수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따라서 특정국가의 특정현장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ICN은 회원국 협회들이 협상권을 수립하거나 쓰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능동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대한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회원당 회비에 기초를 둔 ICN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ICN이 회원국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47페이지에서>

곳에接觸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中입니다. 新聞貸與金 30,000,000원은 本會 長期計劃案에 따라 85年度부터 年次的으로 還納 하기로 今年度 全國 代議員 總會에서 議決 된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建立計劃하고 있는 看護員의 집, 看護教

育 center, 地域社會를 위한 保健機關을 建立할 事業設計는 여러 他 專門分野의 人事들과 接觸하여 細密하고 完全한 計劃을 樹立하여 段階的으로 나누어서 年次的으로 數個年에 걸쳐 建立할 目標를 세우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첫째는 生理 現象의 Transient Phenomena (過渡現象)와 Dynamic Response가 生理現象의 研究의 敎育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人體가 內的이나 外的 要因에 依한 過渡現象에 反應하는 과정이 動的인 生理現象을 探究하는데 重要하게 되었고 이 Dynamic response를 研究하기 爲하여는 Computer, 數學 工學을 利用한 醫工學의 Analysis Method와 Measurement Technique이 크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醫工學 과정의 必要性은 各種醫療機器로 測定하고 分析하는데 있어 使用된 各種의 數學的인 Assumptions, 測定の 誤差와 限界性, 또한 Physiological Variables의 誘導 過程을

理解하고 있으면 醫療機器를 最大限으로 適切하게 使用할 수 있게 되고 Computer에서 나온 Clinical Data를 正確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醫工學 과정의 敎育과정에서 現在 各 該當分野를 하나씩 전담하고서 研究하고 있는 本科의 技術要員이 中樞的인 役割을 할 것입니다.

結論的으로 本科의 現況과 展望을 綜合하면 Biomedical Engineering과 Clinical Engineering의 二重 Function을 兼備하고 本 醫工學科는 Research, Education, Maintenance의 3個 業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國內의 醫工學 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는 바입니다.